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17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대간 중추 출정식을 갖고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연관스님, 수경스님.

“민족영산 지리산 지켜주소서”

범종교계 100일 기도입재

백두대간 중추 · 천도재도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범종교계의 100일 기도 입재식이 1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렸다.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16명) 주최로 열린 이날 입재식은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흥근수 목사, 김영식 신부, 이선종 교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월주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수많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지리산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지리산을 살림으로써 오랜 염원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토양을 가꾸는데 일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기도를 올렸고 문규현 신부가 범종교인 청정국토 선언문”을 낭독했다.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다음 날 지리산 천왕봉에서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등 3명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중추팀”의 출정식을 갖고, 오는 5월 26일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직장불자회 아내들 ‘포교내조’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기원사. 20여명의 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리나라 전통등인 풍경등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바로 성북승무사사무소 법무회원의 부인으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원들로 19-21일 3일 동안 풍경등만들기 심미에 빠져있다.



△승만부인회 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열차안(전)을 기원하며 전통등을 만들고 있다.

승만부인회는 10년 넘게 남편들과 함께 성북승무사사무소 법무회 활동을 하다가 부인들끼리 법회도 보고 신행활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정식 창립했다. 이들이 전통등을 만들게 된 것은 부처님 오신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아니라 4월 철도 안전의 달을 맞아 열차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철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순직한 국가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부인회는 지난 달 조계종 봉축위원회에서 개최한 전통등만들기 강좌에 13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중등과 복등을 실습으로 제작했다. 또 4월 21일 전통등 점안식을 갖고 3일 동안 만든 풍경등 15개와 중등 복등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성북역 1번출구에 전시할 계획이다.

성북승무소 승만부인회

전통등 만들어 역내 전시

환경캠페인 · 이웃돕기도

을을 짓는다. 오늘이 휴무일이라는 이종문(55)씨도 “내와 함께 전통등을 만들어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며 “이 등이 성북역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피곤이 금방 사라진다”며 열심히 도안 문양을 그린다. 올해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한 강유진(23)양도 “엄마가 같이 가서 전통등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왔지만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전통등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고 말한다. 앉은채로 하루 8시간씩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서로 서로 다리도 주물러 주고 격려도 해주며 풍경등을 만들고 있다.

승만부인회 봉축준비위 남두에(50) 위원장은 “등 하나하나에 회원들의 정성과 깨끗한 마음들이 들어있다”며 “전통등 전시를 통해 불교도 알리고 부처님 오신날이 국민의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승만부인회는 현재 30여명의 보살들이 매월 정기법회는 물론 환경캠페인, 사찰순례, 불우이웃돕기, 성북승무사사무소 법무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수계법회

천리안 불교동호회(대표이사 김용태)는 17-18일 남원 실상사에서 전국 모임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불,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일귀스님의 법문, 300배 참회기도, 좌선 및 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융단 법당건립 추진

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김윤)는 지난 14일 명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해 3월 성지순례, 4월과 10월 합동법회,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 참여, 7-8월 수련대회, 9월 산행활동, 11월 봉사활동 등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특히 올해를 금융단 자체 법당 건립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반야회 담오스님 초청법문

대전정부청사 반야회(회장 김창균)는 18일 대전 실상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불교는 자력신앙이다’라는 주제로 주지 담오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MBC 불교연구회 상원사 참배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는 24일 월정사와 상원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는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의 법문, 상원사 보광암배 등으로 진행됐고, 30여명의 회원들은 문수보살의 원력으로 불자회가 활성화되기를 서원했다.

생협등 5대 과제 중점 추진

인드라망 올 사업확정...생태농업연구 설립추진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제2차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지난 1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이날 총회에서 창립 후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귀농 생협, 대안교육, 지역공동체형성, 환경연대운동 등 5대 영역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귀농운동과 관련, 하반기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준공하고 사단법인 생태농업연구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귀농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불교귀농학교와 귀농전문학교 동문회원을 조직화하고 지리산유역의 귀농자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또 환경연대운동과 관련, 사찰 유희토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귀농자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계 환경단체 협의를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에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 ▲대불칭 민해백일장=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 22회 민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시조, 신문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초·중·고·대학생이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3월 1일까지이며, 수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서울시장상 등이 주어진다. (02)738-3385
- ▲이동 청소년 심리검사 실시=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02)571-2988
- ▲무료세탁방서비스=서울시립평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무의탁 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세탁물을 수

거해 세탁하여 다시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02)385-1351

강좌

- ▲육조단경=조계사는 3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육조단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도솔 선생, 그전 아니올시다>의 저자 변상섭씨. (02)720-1390
- ▲불교교리=법장사는 3월 13일부터 4개월 과정 불교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법장스님이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이며 교육내용은 불교예절, 불교삼시, 부처님 일대기, 불교사 등이다. (02)971-0303

모집

- ▲자원봉사 무료 시민대학 수강생=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3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될 제 13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불학기 수강

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02)723-6258

▲불교의식 학인모집=해동불교범용대학은 제 3기 불교의식과정을 수강할 학인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13일이며 기본, 중급, 작법, 신행 등 4개반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목탁, 요령 잡는법부터 관음식, 다비식, 천수바라, 나비춤 등을 배우게 된다. (02)741-0495

▲강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강북장애인복지관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우리두리’ 이용자를 모집한다. 우리두리는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된다.

▲귀농학교 지킴이=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3월 12부터 3개월 과정으로 미래의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제 6기 농업생명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상 55세 이하의 남녀

20명. (063)636-3776

▲청담어린이집 교사=청담어린이집은 2세 미만 영아반 담임교사를 모집한다. 보육교사 자격증과 간호사(조무사)자격증 가진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2)806-1373

▲전각종 교화지 중무원=불교전각종은 고품 이상 졸업자로 남자 만 20-30세, 여자 만 18-24세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화지 중무원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자필이력서, 호적등본, 당해 심인당 주교 추천서이며, 제출기간을 3월 12일까지이다. (02)913-0751-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 상담 변호사 이종우
■ 전화 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범패)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연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 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올바르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원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작법과 : 00명 · 불전 의식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범패,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육, 시식, 상주권공
- 작법과 : 바라두, 착복두
- 불전 의식과 : 일용의식 - 도량서, 종승,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육, 시다림, 집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 : 1년 · 작법과 : 6개월

· 불전 의식과 : 6개월

*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1년도 시간표					
요일/과목	어산과 (1년)	요일/과목	작법과 (6개월)	요일/과목	불전 의식과 (6개월)
시간조정	시간조정	수	19:00~20:30		
시간조정	시간조정	목	19:00~20:30		

응시자격

- 종현,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 각 과정 재가불자도 청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승적증명서 1통
- 3) 반명함판 사진 2매

접수일자 2001. 3. 9(금)까지 (우편접수도 가능함)

면접일자 2001. 3. 10(토) 오후 3시

개강일자 2001. 3. 12(월)

원서교부 및 접수처

(415-070) 경기도 김포시 통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Tel. 02) 921-3425 031) 980-7716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은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를 정돈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체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며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 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 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로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एंढदररर ररररर (○) कककककक.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앓이 겪고 있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번개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당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